門 넓어진 종단협 차기 사무총장

12월 14일, 이사회서 선출

일반이사종단까지 자격이 확대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기 사무총장에 교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2017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월도 스님 후임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종단협 사무총장은 회원종단 화합 도모와 대정부 역할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예비회담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종

일반이사까지 자격 확대돼
호당·도각·지민·만혁 거론

단협은 그동안 상임이사 중에서 사무총장을 추천했지만 지난 이사회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일반이사까지 사무총장 자격을 넓혔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서 사무총장 후보들의 난립이 예상된다.

후보로는 진각종 총무부장 호당 정사,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 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 등이 꼽힌다. 수석부회장종단인 천태종의 경우 직전 사무총장을 월도 스님이 맡은 관계로, 태고종은 집행부 인선이 얼마 전에 이뤄진 점에서 진각종과 관음종 출마가 예상된다. 아울러 평소 정관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던 삼론종 지민 스님, 평소 회원 종단의 화합을 강조하는 본원종 만혁 스님이 일반이사종단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진각종은 재가종단이라는 점에서 사무총장직 수행 시 국제교류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관음종은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30여 년간 사무총장을 맡아온 관계로 타종단 표심을 얻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삼론종 지민 스님은 평소 진각종·총지종 등 재가종단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것이 발목을 잡는다. 해인사서 출가한 본원종 만혁 스님은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행정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후보가 거론되면서 차기 사무총장은 이사회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도 안갯속이다. 다만 회장·부회장종단과 일반이사종단 간에 알력이 있어왔음을 감안할 때 서로 후보 단일화를 이룬 뒤 표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원종단 관계자는 "오랫동안 상임이사가 사무총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이사들이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후보는 최대 6~7명이 꼽힌다. 만만치 않은 이사회가 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호섭 기자

"스님 말에 '흔들'… 복지법인 독립성 절실"

조성희·이혁수 순천향대 교수 불교사회복지포럼서

"주지스님의 말 한마디에 사회복지법인 운영방향이 결정된다. 주지스님의 의지 없이는 법인 사무국의 체계·인력·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법인의 공간·행정·조직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모 교구본사 복지재단 관계자의 뼈아픈 지적에 그동안 스님과 사찰위주로 운영되며 개인 능력에 의존해 성장해온 불교사회복지의 민낯이 드러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2월 7일 개최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불교사회복지포럼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 순천향대학교 조성희 교수, 이혁수 외래교수는 '불교계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조계종 교구본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실무자들의 견해를 공개했다. 조 교수와 이 교수는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에는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실무자의 인터뷰도 다수 실려 눈길을 끌었다.

'2017 불교사회복지 편람' 제작을 위해 진행된 연구서 인터뷰에 응한 실무자들은 불교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특히 전문적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법인사무국 전임자의 전문성 확보, 교구별 사회복지법인 인력대상의 정기적 교육과 업무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실무자들의 이야기에 덧붙여 조성희 교수는 "그동안 불교사회복지활동은 스님의 개인적 노력과 각 사찰을 중심으로 확장됐다. 또한 시설은 노인이나 유아로 한정된 분야에 편중됐으며, 각 시설들의 운영주체가 사찰별로 분절돼 있다. 이 때문에 불교만의 통합적 고유성이 부족하고 법인·시설 간 효율적 연계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법인·시설간 효율적 연계 위해
'시스템'에 의한 사업수행 필요
교구본사 실무자 인터뷰도 반영
현실적 불가능 한계점도 지적돼

또한 실무자들은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펼치는데 중요한 △시기적절한 복지정보의 획득 △지역 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간의 교류 활성화 △재정과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의 경우 서울 등 중앙서 발생하는 새로운 현안을 알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다는 어려움도 전했다. 또한 실무자들은 법인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 했다. 특히 설립한지 얼마 안 된 신생 사회복지법인은 연차별 성장과정에 대한 조언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불교사회복지포럼에서 조성희·이혁수·조기룡 교수 등 전문가들이 불교사회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혁수 교수는 지금까지 개별능력에 의존하던 방향과 달리 '시스템'에 의한 사업수행을 강조하며 교구별 사회복지사무국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교구본사는 종무행정과 사회복지사업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불교사회복지활동은 종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에서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효과에 대해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사무국이 불교사회복지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성 문제도 제기됐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사무국 이전에 교구본사 사무국도 존재치 않는다. 우선적으로 교구본사 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교구본사의 현재 역량을 고려한다면 교구사무국을 설치해 사회복지법인의 업무 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가 정착하고 확장됐을 때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불교사회복지포럼이 끝난 후에는 자비나눔 힐링콘서트와 기념대법회가 진행됐다. 기념대법회서는 그간 불교사회복지발전을 이끌어온 자비나눔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교육아사리, 미래·융복합 연구 주도해야"

조계종 교육원, 12월 8일 전문 연구자 세미나

한국 불교학 연구 경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불교학 연구의 경향과 과제'를 주제로 2차 전문 연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조계종 교육아사리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역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자현 스님은 '한국 불교학 연구의 경향과 과제-교육아사리 연구동향과 역할을 중심으로'에서 2013~2017년간 불교와 직접 연관된 학진등재지 11종을 대상으로 교육아사리들의 연구를 분석했다.

자현 스님에 따르면 교육아사리들이 5년간 등재지 실적은 총 177편으로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이는 전체 스님들의 논문 편수에 70~80%에 해당하는 수치다. 범주별로 분석하면 △교학-29편 △사학-51편 △선학-36편 △율학-12편 △초기불교-1편 △미술사-9편 △응용-20편 △근현대불교-19편이다.

자현 스님은 "5년간 불교학 연구에서는 교학 비율이 높았지만, 교수아사리의 연구에서는 사학과 선학의 비율이 높았다"면서 "특히 선학은 일반 재가인의 연구에서는 응용불교나 근현대불교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교육아사리의 연구에서는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아사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그룹에서는 율학 및 근현대불교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교육아사리 연구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 자현 스님은 △불교 전통과 현대의 결합 △미래학과 4차 산업 관련 연구 △학제적 연구와 융복합 연구 필요 등을 제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없는 문' 열고 용맹정진에 들다

신흥사 향성선원-기본선원 등 동안거 결제

총 57명 수좌 용맹정진에 돌입
자승 스님 백담사 무문관 입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속초 신흥사와 인제 백담사, 종립기본선원은 12월 2일 신흥사서 정유년 동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본선원과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결제 법어를 대독하며, 운수납자들의 3개월 용맹정진을 독려했다.

무산 스님은 법상에 올라 10여분간 또렷한 어조로 결제법어를 담담하게 읽어내려 갔다. 법석 우측에는 평소 무산 스님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정치인과 문학인들이 좌정하고 앉아 스님의 대독에 귀를 기울였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선 前강원도지사, 성낙인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오세영·이근배 시인 등이 자리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8년간 역임한 뒤 지난 10월 임기를 마친 자승 스님이 참석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법회에 앞선 차담 자리에서 무산 스님은 자승 스님에게 "임기를 마친 뒤 백담사 무문관 수행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오늘 지켜주셨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無門關(무문관)은 '문 없는 문의 빗장' 또는 '문이 없는 관문'이란 의미로 중국 송나라의 선승 무문 혜개(無門 慧開) 스님이 48개의 공안(公案)을 모아 풀이한 책 〈무문관〉서 비롯된 말이다. 의미는 글자 그대로 문을 걸어 잠근 채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수행하는 곳을 뜻한다. 무문관에선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一種食)과 묵언(默言)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점심 한 끼만 쪽문을 통해 제공된다.

자승 스님이 입실한 백담사 무문관은 보통 오전 11시에 문 한쪽에 뚫어놓은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인제 백담사, 종립기본선원은 12월 2일 신흥사서 정유년 동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다.

구멍으로 보온 도시락 형태의 과일과 식사가 배달된다. 또한 각 방사 앞에는 한평 남짓한 포행 공간도 개별적으로 마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운수납자들이 '무문관' 안으로 들어가 치열한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문 없는 문'을 열고 대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다. 폐관 수행은 결코 무료하지 않으며, 치열한 수행과 올바른 깨달음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前낙산사 주지 무문 스님은 "비록 문은 닫혔으나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의 그곳은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이라며 "한 티끌이 시방세계를 머금듯 대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정연함이 펼쳐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백담사 무문관 수행경험의 감회를 피력했다.

법회가 끝난 후 자승 스님에게 이번 무문관 수행의 화두와 소감을 재차 묻자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라는 짤막한 화두로 답을 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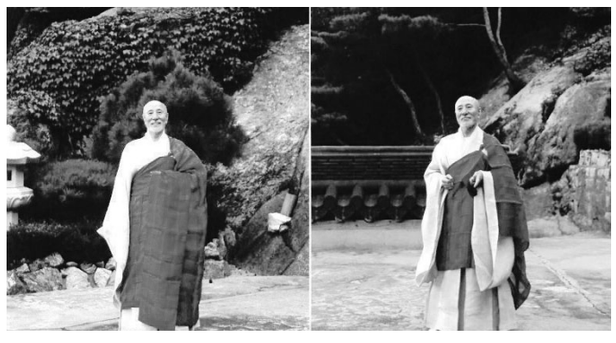
한편 종립기본선원과 3교구 정유년 동안거에는 신흥사 향성선원 11명, 백담사 무문관 10명, 기본선원 36명 등 총 57명의 수좌 스님들이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속초=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